

제10차 인도양참치위원회(IOTC) 할당량기준위원회(TCAC)

'22.06.20(월)-06.23(목), 세 이 셸

## 제10차 인도양참치위원회(IOTC) 할당량기준위원회(TCAC) 참석 결과

2022. 07.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해외수산협력센터

# I 회의 개요

□ **회의명** : 제10차 IOTC 할당량기준위원회\*

\* 영문명 : 10th Meeting of the Technical Committee on Allocation Criteria(TCAC10)

□ **회의 목적**

○ 인도양 협약수역의 어종에 대한 할당제도 수립을 위한 제안서 논의

□ **일시/장소** : ‘22.06.20.(월)~23.(목), 09:00~17:00(현지시간)/ 빅토리아, 세이셸

□ **참석자**(약 100여명) : 한국, EU, 중국, 호주 등 (회원국 30개국), CNCP, 등

○ 한국 대표단

비고	기관 및 직위	이름
수석대표	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	심수빈
대체수석	해외수산협력센터 전문관	김수민
대체수석	해외수산협력센터 전문관	원태훈
자문	한국원양산업협회	최봉준
자문	한국원양산업협회	백상진
자문	한국원양산업협회	김태호
자문	동원 산업	정재훈
자문	사조 산업	박진석

□ **주요 의제**

○ 인도양 협약 수역의 어종에 대한 할당 제도 수립을 위한 결의 요소 논의

## II 주요 논의 결과

### 1 제10차 IOTC 할당량기준위원회(TCAC10)

#### □ 할당 제도를 위한 의장 제안서 논의 지속

- 연안개발도상국 및 SIDS와 조업국 간의 합의점 도달 실패
- 연안개발국은 지속적으로 EEZ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할당 제도 원칙(Principle) 부분에도 연안국의 권리를 명시하길 요청하였음
  - (연안국)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(UNCLOS)와 UN Fish Stock Agreement(UNFSA)에 따라 연안국의 EEZ는 연안국의 권리하에 있으며 그 수역 내 이루어지는 모든 어획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
  - (조업국) 할당 기준일 뿐이며 연안국의 권리에 대한 것은 원칙 부분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
- 할당 기준에 대한 논의
  - (조업국) EEZ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어업을 하였으며 모든 어업 권리는 선박의 기국에게 있음
  - (일본) 과거 어획을 100퍼센트 인정해주긴 어려우나 XX%를 논의할 의향 있음 표명
  - (인도, 방글라데시)\* 연안개발국의 과거 어획에 대하여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과거 어획 기록으로 어획 제도를 구성하는 것은 불공평함
    - \* 해당 연안개발도상국의 경우 EEZ 어업 라이선스를 판매하지 않은 국가들로 연안국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어획량이 거의 없음
  - (연안국) 과거 및 향후 EEZ에서 어획되는 모든 어획량(기국 상관없이) 해당 연안 국가의 어획량으로 간주되어야함

- (호주, 인도네시아) 과거 어획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 공해와 EEZ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서 측정 되어야하며 새로운 측정 방식 제시할 예정

#### ○ 과거 어획 기준 년도

- (모리셔스) 어업 데이터를 제대로 기록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16년도 이후의 연도도 어획 기준에 넣어주길 요청
- 최신 연도로 설정하게 되면 이를 악용하여 초과보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좀 더 논의 필요할 듯

#### ○ 심각한 미이행에 따른 할당 자격 논의

- (연안국) 분담금 미지불은 할당 제도와 상관없는 것으로 관련 요소를 넣는 것 반대

### □ 관찰 및 평가

- G16으로 몽친 연안국의 기세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조업국의 권리만 주장하기보다는 기브-앤-테이크 전략을 구상해야 할 필요 있음
  - EEZ에서의 과거 기록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되 연안국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연안개발국들과 가깝게 대화 이어가야 함
- 일본은 조업국의 향후 연안국의 EEZ 내 어획량을 연안국의 권리로 인정하거나 과거 어획량의 XX%를 연안국에게 넘겨줄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
- 한국 또한 연안국의 권리를 인정하는 모습을 일정 보이면서 조업국의 어업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관찰됨